

시·도 지사후보 연쇄인터뷰

광주시장 열린우리당 조영택

결어온 길

33년 행정관료...지방행정 익혀

조영택(55) 후보는 완도 금일읍 출신으로 광주일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나왔다. 1973년 22세의 나이로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 33년동안 행정관료로 잔뼈가 굵었다. 전남도청 농정과장 등을 역임하다가 1985년 전국 최연소인 34세의 나이에 장성군수로 임명되는 영예를 누리기도 했다. 이후 내무부 행정과장·지도과장 등 5개 과장(1986~1991)을 지내며 지방자치 부활, 지방의회 구성, 지방선거 추진 등 실무를 쟁기다가 의정부시장·군포시장·경기도 기획관리실장(1991~1995) 등을 거쳐 지방행정을 익혔다.

조 후보는 또 행정자치부에서 인사국장·자치행정국장·공보관(1998~2000), 행정자치부 차관보(2000~2002), 행정자치부 차관(2002~2003) 등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2003)으로도 일했다. 조 후보는 참여정부 들어 국무총리실에 들어가 차관급 기획수석조정관으로 1년8개월,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으로 1년을 보냈다. 최근 호남고속철도 조기 건설 결정,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위 발족, 서남해안개발사업 추진 등 지역 현안에 관여했다.

부인 전경필씨와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딸인 나경씨는 서울에서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고 아들 재철씨는 사법고시에 합격, 사법연수원에서 연수 중이다.

공약

'일 잘하는 시장'을 표방하고 있는 조영택 후보가 제시하는 공약은 크게 ▲광주문화중심도시 완성 ▲21세기 첨단경제도시 건설 ▲교육 제1도시 추구 ▲민주·인권도시 지향 ▲녹색환경도시 육성 ▲균형발전·행정혁신 실현 등 6가지로 요약된다.

조 후보는 우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기간을 10년 단축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 문화예술종합학교와 문화예술재단 설립, 2013년 동아시아대회 유치 등을 통해 광주문화중심도시를 조기에 완성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또 참여정부 임기 내에 호남고속철도 착공에 들어간다고 하고 공동화면 구도심의 대대적인 재개발, 송정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 균형발전과 행정혁신을 실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조 후보는 나아가 광주에 R&D(연구·개발) 특구를 지정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기로 했다. 또 바이오메디컬 연구단지 조성, 신에너지산업 육성 광주를 첨단 기술 및 우수인력이 어우러진 경쟁력 있는 21세기 첨단경제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조 후보는 또 교육 제1도시 육성을 위해 광주시 세입예산의 5% 이상을 교육에 투자하도록 하고, 과학기술대 설립 및 이전, 과학기술고 이전 및 과학영재고로 전환 추진, 영어타운 건설, 한국예술종합학교 분교 유치, 예술중학교 설립 등을 세부 계획에 포함시켰다.

그는 국립 5·18 민주묘지 인근에 인권테마파크를 조성하고 5·18 민주화운동 연구·기념사업에 대한 특별법 제정, 5·18 광주항쟁 연구단체 설립 추진, 광주 어르신료센터 및 전문치매병원 설립 등을 통해 광주를 민주·인권도시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행정혁신 앞장...‘일 잘하는 시장’ 되겠다”



- 민주당 박광대 후보는 지난 민선 3기 광주시장 가운데 삼성전자 백색가전 이전, 기아차 생산라인 증설 등 투자유치 성과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 박 후보의 경제정책을 포함, 그동안의 시정에 대한 평가는.

▲삼성전자 백색가전 이전 등을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대에 못 미쳤다. 지난해 광주시 수출을 살펴보면, 총 수출액 72억달러 중 기아자동차(약 30억 달러)와 삼성전자(약 13억 달러)가 60%를 차지하고 있다. 특정 기업에 지나치게 편중된 산업구조도 문제지만 지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대부분 역외로 유출되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다.

기아자동차의 총 협력업체 수는 모두 244개사인데 광주에 소재한 협력업체는 21개사로 그 비율이 8%에 불과하다. 납품액 기준으로는 약 25%인 8천700억원만이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뿐, 2조6천억원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이다. 또 2005년 광주시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은 3천900만달러(약 40억원)로 16개 광역시도 중 13위다. 박 시장 재직 시 광주시 1인당 GRDP(지역내 총생산)은 전국 평균 대비 70% 정도에 머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 열린우리당은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문화의 전당 건립 등 각종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건물 몇 개 지어주는 것일 뿐 광주 미래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저평가하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육성 정책의 문제점과 함께 앞으로 진행될 바람직한 방향은.

“문화중심도시특별법 국회 통과 시급 호남권 고유 문화와 연계 방안 마련”

▲현재 국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광주지역 의원들과 힘을 합쳐서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이 완료되면 전문가 참여 및 운영자 육성에 노력하고 해외 벤치마킹 통한 성공전략과 호남권 고유의 문화와 연계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겠다.

- 박광대 후보는 경제시장을 강조하는 등 시장후보들이 저마다 주장하는 모토를 가지고 있다. 조 후보가 생각하는 시장상은.

▲민선 4기에 필요한 리더십은 박 후보가 주장한 것처럼 개인적 신념이나 추진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저는 방패장 부지 선정, 새만금 건설사업, 용산미군기지 이전사업 등 사회적 갈등이 유발된 국정과제를 무리없이 해결했다. 때문에 '통합의 리더십 소유자'라는 별칭을 얻었다. 또 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건설 등 참여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수립을 주도해왔다. 호남고속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정부 방침 결정과 서남해안 개발사업 및 무안기업도시를 정부시범사업으로 추진토록 하는데 일조했다. 오랜 공직생활을 하면서 광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자산을 축적하고, 중앙에서 행정혁신에 앞장서 온 만큼 '일 잘하는 시장'이 되겠다.

- 광주의 청년실업률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그 해소책은.

▲전통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R&D(연구·개발) 특구 지정을 통한 첨단산업 유치, 혁신형 중소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강화,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이취 2010년까지 15만개

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 고속철도 건설 및 무안공항 개항 등과 맞물려 광주공항 존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간공항과 군공항으로 나눠 입장을 밝힌다면.

▲광주가 발전을 거듭하면서 이제 광주공항이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게 됐다. 광주 균형발진은 광주문화중심도시 위상에 걸맞게 이전할 필요가 있다. 소음 피해 정도가 심한 균형발전 기능을 우선 이전하고 민간공항 기능은 시민들의 뜻을 존중해 이전 여부를 결정하겠다.

- 나주혁신도시 건설에 대해 일부에서는 광주 뒷에 전남에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에 대한 입장과 나주혁신도시 건설의 올바른 방향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가장 부합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도가 합작해 이전 공공기관을 한곳에 모음으로써 공공기관 이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간 협약으로 지방세 등 이전 효과를 균등하게 배분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일부의 우려와는 다를 것이다. 나주혁신도시는 광주와 전남이 경쟁관계가 아니라 동반자 관계임을 고려할 때, 에너지·정보통신·문화 등 관련 산업과 연계한 첨단 미래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반 마련 차원을 고려했을 때 매우 잘된 결정이다.

-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지하철 적자, 제2순환도로 적자 등으로 재정적자가 심각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광주시 지하철 1호선 적자가 연간 200억원에 이르는 데도 수송분담률은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 대중교통체계에 대한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 버스준공영제 실시, 지하철-버스-마을버스간 환승시스템 구축, 통합대중교통시스템을 구축해 시민들이 편안하고 신속하게 대중교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지하철 2호선 건설, 제2 순환도로 요금 인하 문제는 광주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 참여정부 정책의 그동안 공과는.

▲참여정부는 무엇보다 정치를 개혁하고 부패한 사회를 만들었으며 권력기관의 권위주의적 행태를 불식시켰다. 또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했으며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도·재정적 기반을 구축했다. 참여정부는 이와함께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즉흥적·인위합적 정책을 쓰지 않고 건설한 경제기반을 조성하는데 모든 힘을 다했다고 본다. 그러나 정치적 갈등 구조를 해소하는 데 미흡했으며 우수한 로드맵에 비해 실천력·추진력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갖게 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 한 달 반을 경선논란으로 표류하다가 갑자기 전락공천됐다. 이에 대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중앙집권적 공천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왜 처음에는 경선을 거부했으며 이후에는 여론조사 경선까지 거부했나.

▲경선 거부하는 것은 광주의 전략적 중요성을 당원들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오해일 뿐이다. 열린우리당의 전락공천은 과거 제왕적 총재와 제왕적 대통령의 1인 지배체제 하에서 이뤄지는 전략공천

“국내외 기업 유치 경제 활성화 15만개 새 일자리 만들어 낼 터”

과는 전혀 다르다. 열린우리당의 의사결정구조는 상향식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고,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이번 광주시장 후보 결정 역시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 경선을 거부한 적도, 여론조사 경선을 거부한 적도 없다. 경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중앙 당에 이의를 제기하고 판단을 부탁했던 것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 마음이 아프다.

- 이번 공천 과정에서 광주지역 국회의원 7명이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지역민의 상당수는 이들 국회의원의 정치적 부패와 포용력 부재를 비판하고 있다.

▲그들은 이 지역의 정치적 대표자들이다. 적어도 사리사욕이나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공천과정에 개입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정치적 대표로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책임있는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든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

-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앞으로 민주당 박광대 후보와 대결에서 펼칠 전략은, 그리고 승산은.

▲시민들에게 시장공약과 문제해결 능력을 알려서 현명한 판단을 하도록 돕는 것이 최고의 선거 전략이다.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10년 가까이 전횡정쟁이 시장을 가지지 못했던 광주시민의 아쉬움이 선거 결과로 표출돼 승리할 것으로 믿는다. 특히 정당지도가 상승세를 타고 있어 이런 정서와 개인의 능력·자질·비전 등이 결합되면 상승 작용을 할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일보 18일부터 인터넷 광고 개시...후보자·유권자 모두 '원 원' 선택 www.kwangju.co.kr